

##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삼화콘덴서공업(주)

- \* 지난 53년 동안 국내 유일하게 녹색 성장 실천
- \* 지난 2008년 우주항공, 방위산업, 의료기기 및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수용 초고압 MLCC 개발
- \* 초고용량 적층 세라믹커패시터(MLCC)를 양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 국내에서 독보적
- \*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DC-Link 콘덴서의 약점인 무게와 크기, 내열성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기 자동차용 세라믹 커패시터 모듈을 개발
- \* 국내 SVC의 자체 양산 및 판매가 가능한 최초 기업

- 대표이사 : 오 영 주, 황 호 진
- 업 종 : 전자축전기 제조업
- 설 립 일 : 1956년 8월 14일
- 상 장 일 : 1976년 6월 26일
- 본 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복리 124
- 총 자 산 : 750억원(2009년 6월 30일 현재)
- 매 출 액 : 565억원(2009년도 상반기 실적)

삼화콘덴서공업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 L사나 S사 전자업체보다 최소 2년 최장 12년 먼저 국내 전자산업의 씨알이 된 기업으로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와 진화를 거듭해 왔다.

삼화콘덴서공업은 1956년 설립 이래 지난 53년 동안 콘덴서 생산으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녹색 성장을 53년 동안 실천해 온 기업이기도 하다. 콘덴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화콘덴서공업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대비해 콘덴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풍력발전 등 녹색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콘덴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공정1



• 공정2



• 공정3



• 공정4



• 공정5

특히, 삼화콘덴서공업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녹색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에너지를 안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업이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최종 수용자인 공장, 일반 가정집에 전기 100을 보내면 실제 95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 5는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손실된다. **삼화콘덴서는 이런 전기 손실을 잡아주는 발전소에서 100을 보내면 최종 수용자에게 그대로 100이 전달될 수 있는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다.**

삼화콘덴서공업은 두 개의 전극판과 그 사이의 유전체로 이뤄져 있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세라믹 콘덴서, 필름콘덴서로 나누어진다. **세라믹 콘덴서, 필름콘덴서가 주력 상품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필름콘덴서 사용으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MLCC) 분야도 독보적이다.** MLCC는 다층 구조의 세라믹으로 이뤄져 있는 적층 세라믹콘덴서로 최근 휴대 전자기기의 다기능, 소형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급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삼화콘덴서공업은 현 생산공정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초고용량 위주로 신규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MLCC 최소형인 0603Size 제품까지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8년도에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의료기기 및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수용 초고압 MLCC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삼화콘덴서공업은 고부가가치 원천 기술을 갖고 본격적으로 녹색 사업에 진출하여,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콘덴서를 개발, 완료하였고, 국내 하이브리드카에 납품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DC-Link 콘덴서의 약점인 무게와 크기, 내열성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기자동차용 세라믹캐패시터 모듈을 개발, 시험 테스트 중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콘덴서는 고신뢰성을 가지면서 소형, 고효율이 생명인데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나노 기술을 적용한 파인 세라믹 원천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필름 콘덴서에 비해 무게와 두께 등을 3배 이상이나 줄였다.

삼화콘덴서공업은 지난 2009년 5월에 중국전력원(CEPR)과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 SVC(정지형무효 전력보상장치) 판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삼화콘덴서공업은 이번 체결을 통해 중국전력원이 보유한 SVC 기술을 활용,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SVC 제품 양산 및 판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SVC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콘덴서뱅크와 리액터(REACTOR) 등을 중국전력원에 공급, 중국시장의 확고한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삼화콘덴서공업은 중국전력원과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SVC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풍력, 태양광 등 그린오션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국내에서 SVC의 자체 양산 및 판매가 가능한 최초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으며, SVC 사업의 중국·러시아·아시아 등 확대로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삼화콘덴서공업은 첨단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가치창조 기업'이라는 VISION을 실현하여 주주와 고객께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 beadfilter



• DCC



• SMDC



• 특수형 MLCC



• 하이브리드 DC-LINK 콘덴서